

종식 촉구

의 국제법률가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임수정씨의 구속에 항의하는 서신을 지난 23일자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89. 9. 1

임신 5개월 주부

길에서 납치폭행

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임신 5개월된 가정주부를 납치·폭행한 김기수(23·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40 태광연립 5동 22)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삼수(29·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께 산부인과에 가기 위해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지하도를 건너던 이아무개(24·여·노점상·서울 종로구 돈의동)씨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접근,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지하철에 태운 뒤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동대문 지하철역 부근의 여인숙으로 끌고가 번갈아 폭행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김씨는 또 지난 2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내 포장마차에 찾아가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뒤 뒤를 쫓아가 “폭행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 공원관리사무소 뒤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피해자 이씨는 지난 4월말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낙태수술을 받은 뒤에도 김씨 등이 계속 같은 수법으로 위협해 오자 지난 30일 경찰에 신고했다.